

한국 아동의 행복감척도 개발연구

Development of a Happiness Scale for School-aged Korean Children(HSSKC)

창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조 교수 최혜영*

한양사이버대학교 아동학과

조 교수 신혜영

전남대학교 유아교육과

부 교수 최미숙

호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조성연**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Changwon National Univ.

Assistant Professor : Choi, Hye-Yeong

Dept. of Child Studies and Education, Hanyang Cyber Univ.

Assistant Professor : Shin, Hae-Young

Dept. Early Childhood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

Associate Professor : Choi, Mi-Sook

Dept. Early Childhood Education, Hoseo Univ.

Professor : Cho, Song-Y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Happiness Scale for School-aged Korean Children" (HSSKC). Participants consisted of 2,528 children who were chosen from six places, namely: Seoul, Gyeonggi, Chungnam, Jeonnam, Gyeongnam, and Gangwon. The province of Jeju-do was not included. The study assessed children's perception of happiness in six areas of life. For data analysis, the study employed the following methods: descriptive statistics,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d Cronbach's α . Initially, the study used an original scale composed of 32 items, but these were later reduced to 29 through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he study identified six factors which influenced the happiness of school-aged children: (1) self-esteem, (2) parent-child relationship, (3) school life, (4) after-school activities, (5) general living environment, and (6) satisfaction of needs. Validity was determined through correlating the sub-factors. Using Cronbach's α to measure the reliability of factors, the result ranged from .60 to .81.

▲주요어(Key Words) : 행복감 척도(happiness scale), 초등학교 아동(school-aged children), 타당도(validity), 신뢰도(reliability)

* 주저자 : 최혜영 (E-mail : flora@changwon.ac.kr)

** 교신저자 : 조성연 (E-mail : sycho@hoseo.edu)

I. 서론

행복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기대하는 인생의 보편적이면서 궁극적인 목표로써 삶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추구해가는 심리적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많은 철학자, 종교가들은 행복한 삶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가 하는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다양한 시대를 거치고 사회가 변화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겠으나 한 개인이 성장하면서 궁극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목표가 행복이라는 것은 여전히 부정할 수 없다. 더욱이 현대사회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며 경쟁적인 양상을 나타내므로 개개인 마다 행복에 대한 추구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아동들은 이른 시기부터 경쟁에 노출되어 성장하므로 이 가운데 아동들이 자신의 생활에 대하여 얼마나 행복해하고 만족스러워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미래의 건강한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중요한 일일 것이다.

행복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다. 행복이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마음이며 추상적이기 보다 일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은 상태이고 더 나아가 개인이 획득한 것에 대하여 만족하여 기쁨을 느끼는 상태라고 정의되고 있다(Vitrano, 2006).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행복이란 만족감에서부터 강렬한 기쁨에 이르는 모든 감정 상태를 특징짓는 안녕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행복에 대한 정의가 포괄적이다 보니 때때로 행복은 다양한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다. 행복과 혼용되어 사용되는 용어로는 만족, 삶의 만족, 몰입, 삶의 질, 기쁨, 쾌락, 주관적으로 좋은 상태 등이 있다(이정미 · 이양희, 2005). 이와 같이 행복과 유사한 용어들 간의 혼용의 결과로 행복 또는 행복감을 주관적 안녕 또는 안녕감의 하위요인에 놓기도 하고 주관적 안녕감을 행복감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이런 개념들은 연구자들이 행복을 정의하는 관점에 따라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인 Martin Seligman과 Csikszentmihalyi (2000)은 행복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자한 학자이다. 그들은 행복을 온전한 행복(authentic happiness)으로 설명하고 있다. 온전한 행복은 “긍정적 정서”와 “긍정적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서는 과거, 현재, 미래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과거와 관련된 긍정적 정서에는 만족, 자부심, 평온 등이 포함되고, 미래와 관련된 긍정적 정서에는 낙관론, 희망, 신뢰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한편 현재에 대한 긍정적 정서에는 쾌락과 만족이 포함된다. 남인숙(2007)도 행복의 질적 성격에 따라 쾌락적 행복(pleasure happiness), 만족적 행복(satisfying happiness), 온전한 행복(authentic happiness)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행복에 대한 다른 관점의 정의로 행복의 본질을 연구한 전통

적인 접근에 따른 정의가 있다. 이에 의하면 행복에 대한 접근 방식도 크게 쾌락에 기초한 관점과 행복에 기초한 관점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강영하 2008; 이수정 · 안신호, 2005). 쾌락에 기초한 관점에서 볼 때 행복이란 욕구가 충족된 긍정적 정서와 인지적 만족감의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한편 행복에 기초한 관점은 행복은 최고의 선이자 덕이 있는 삶이라고 하고 있다. 행복에 대한 연구에서 이 두 전통에 의하면 주관적 안녕감이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주로 쾌락에 기초한 관점을 따른 것이고,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는 행복에 기초한 관점을 따른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 두 관점을 굳이 구분하지 않고 행복의 요인을 구성하여 연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외에도 행복에 대한 평가기준을 행복을 형성하게 되는 요인에 따라 구분한 정의도 있다. 하나는 학력, 직업, 결혼여부 등과 같이 상황적이고 상향적인 요인(bottom-up)들에 초점을 둔 요인이고, 다른 하나는 성격, 자아존중감, 적응능력 등과 같이 내면적이고 하향적인 요인(top-down)들에 초점을 둔 요인이다. 초기 학자들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이고 상향적인 요인을 밝히는 데 주력한 것에 비해 최근 연구들은 개인 내의 내면적이고 하향적인 요인들을 밝히는데 보다 관심을 두고 있다. 즉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개인의 평가에 따라 행복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행복을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경험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과 이에 대한 만족감의 상태로 설명하려는 관점이 주목을 받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에 행복을 주관적인 안녕감으로 설명하고 있는 Diener(1984, 2000)의 정의가 각광을 받고 있다. 즉 주관적 안녕감이란 “개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하여 행복을 주관적인 측면으로 평가한 대표적인 연구자이다. 그는 안녕의 구인을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 긍정적 정서(positive affect), 부정적 정서(negative affect)의 세 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3요소 모델(Tripartite Model)을 제시하고 있다(Emmons & Diener, 1985). 또한 행복에서 주관적인 평가가 중요하므로 행복이란 문화마다, 세대마다, 개인마다 다른 방식으로 경험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정 세대나 연령 집단의 행복에 대하여 알아보려 한다면 집단 특성을 다각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동안 행복감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청소년, 대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곽금주, 1995; 구제선 · 김의철, 2006; 김명소 등, 2003; 신지연 등, 2007). 대학생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미래의 직업목표, 자기관리, 자기표현 등이 행복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 청년기의 발달적 지표가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아동기를 대상으로 행복감을 해석하고 구인을 구성할 때에는 성인 세대가 생각하는 행복감의 구인과는 사뭇 차이가 있을 것이다. 아동기는 자아 존중감을 형성하고, 사회의 규범과 가치관을 내면화하며 근면성을 달성하는 시기로서 행복감에 대한

접근에서도 추상적인 행복에 대한 접근보다 아동의 일상생활을 근거한 행복감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정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의 “아동의 행복감”은 아동들이 자신의 문화권 내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 및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느끼는 행복 정도를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행복감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행복감의 구인을 살펴본 연구로는 Huebner(1994)의 MSLSS(Multidimensional Students' Life Satisfaction Scale)가 있다. 이 도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개발된 대표적인 행복감 척도로서 아동이 경험하는 일상생활에서 만족도를 평가하는 도구이다. MSLSS 척도는 가족, 친구, 학교, 자아, 환경의 5개 영역의 4점 척도 4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이정미와 이양희(2005, 2008)가 MSLSS에 기초하여 초등학생 3~6학년을 대상으로 한국판 아동용 다면적 생활만족도 척도(K-MSLSS)를 40개 문항을 개발하고 타당화 과정을 거친바 있다. 이 도구는 초등학교 아동의 생활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친구, 학교, 가족, 환경, 자아의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타당화 과정에서 40개 문항은 34개 문항으로 확정되었다. 다른 연구로는 강영하(2008)가 초등학생 5, 6학년을 대상으로 행복감의 구성요인을 탐색한 연구에서 행복감의 구인을 자기존중감, 낙관주의, 친구관계, 가정환경 4요인으로 밝힘으로써 성인을 대상으로 살펴본 행복감의 구인과는 차이가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복감 도구 개발 연구에서 행복감의 구인에 포함된 내용은 공통적으로 자아관련 내용, 부모관련 내용, 친구관련 내용 등 초등학생의 생활환경에 밀접하게 관련된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이 행복과 만족을 경험하는 일상생활은 자신이 속한 사회문화적 맥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앞서 제시한 바 있다. 그 이유는 한국 사회에서 초등학생 시기를 보내는 아동의 경험은 다른 문화권에서 초등학교 시기를 보내는 아동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아동이 경험하는 일상생활은 자신이 속한 사회문화 맥락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이 부분은 고려되지 못하였다. 현재 한국에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의 일상생활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 부분은 부모들이 제공하는 각종 과외활동이다. 아동의 일상은 이들 과외 활동과 다양한 과제들로 학교 생활이외에도 개인적인 생활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조성연·신혜영·최미숙·최혜영, 2009). 이런 입장을 뒷받침해주는 결과로는 전국 24개 초등학교 1,4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한계례, 2008, 11, 28)에서도 나타났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 중 학교 수업 외에 한 곳 이상의 학원에 다니는 아동의 비율은 80%였다. 이 아동들이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세 시간이었으며, 세 시간 이상을

학원에서 보내는 아동도 40%에 달했다. 이러한 결과는 2007년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초등학생들 가운데 64.8%의 초등학생들이 학원 또는 과외 등 별도의 사교육 활동을 받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수록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2007. 11. 27). 과외활동 관련 사항이 아동의 하루 시간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아동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이 부분은 한국 아동이 경험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행복을 판단하는데 중요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아동이 일상생활에 대한 행복을 평가하는데 학교생활 이외에 과외생활 영역을 포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행복감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일상생활 맥락에 과외생활까지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아동을 대상으로 행복감 척도를 개발한 연구들은 대부분 아동기의 발달 특성은 고려하였으나, 과외활동 같은 한국 아동의 문화적 특성은 고려되지 못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이 고학년만을 주 대상으로 하였거나 표집대상의 선정이 서울지역으로 국한되는 등 한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제한점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사이의 아동을 대상으로 행복감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3학년부터 연구대상에 포함시킨 이유는 3학년 이후의 아동은 발달적으로 자신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시기라는 보고(Harter, 1982)가 있고, 자기 보고식 평가 및 지필 평가방법에 익숙하다는 점에 근거하였다. 또한 전국적인 표집과정을 통해 척도에 대한 표집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행복감 척도 개발 과정에서 표집 대상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은 개발된 척도의 사용을 일반화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아동이 가지는 행복감의 구성요인을 탐색하여 추후 타당화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한국 초등학교 아동의 행복감 척도의 타당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한국 초등학교 아동의 행복감 척도의 신뢰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도 6개

<표 1> 연구대상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2,528)

구 분	빈도(%)	구 분	빈도(%)
지 역	서울	3	550(21.8)
	경기도	4	662(26.2)
	강원도	5	616(24.4)
	충청도	6	700(27.7)
	경상도	남	1,274(50.4)
	전라도	여	1,252(49.6)
	계	2,058(100.0)	계
부 연령	35세 이하	35세 이하	426(15.0)
	36~40세	36~40세	1,424(50.3)
	41~45세	41~45세	777(27.4)
	46~50세	46~50세	176(6.2)
	51세 이상	51세 이상	29(1.0)
부 직업	전문직	전문직	244(12.0)
	사무·관리·행정직	사무·관리·행정직	244(12.0)
	자영업	자영업	295(14.5)
	비숙련직·서비스직	비숙련직·서비스직	350(17.2)
	농·어·임업	농·어·임업	8(0.4)
	무 직	전업주부	888(43.8)
	계	1,885(100.0)	계

지역의 중소도시에 위치한 공립초등학교 3~6학년으로서 각 지역에서 총 14개의 초등학교를 유의표집 하였다. 표집된 초등학교에서는 3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년별로 2개 학급씩 총 146개 학급을 무선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강원도의 경우에는 한 학급의 학생 수가 많지 않아 추가로 2개 학교를 더 선정하였다. 행복감 척도에 응답한 학생은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총 2,920명이었으나, 응답이 불충분하거나 누락된 경우를 제외한 2,528명(86.6%)이 최종 연구대상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의 지역, 학년, 성에 따른 분포는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표집된 아동의 부모 연령은 아버지의 경우 41~45세가 전체의 47.2%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의 경우 36~40세가 전체의 50.3%로 가장 많았다. 부모의 직업유형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경우에는 사무·관리·행정직(34.5%)과 자영업(23.2%)이 가장 많았고, 어머니의 경우에는 전업주부(46.5%)와 비숙련직 및 서비스직(17.2%)이 가장 많았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의 “아동의 행복감”은 아동들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 및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느끼는 행복 정도를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개발과정을 통해 도출된 “한국아동의 행복감 척도(Happiness Scale for Korean School-aged Children: HSKSC)”는 6개의 행복감 관련 하위 영역을 중심으

로 32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척도의 구성에서 하위에 포함된 관련 영역은 긍정적 자아, 과외활동, 부모와의 관계, 형제·자매관계, 여가활동, 학교·지역사회생활이었다. 본 척도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32~128점이며, 응답방법은 ‘매우 그렇다(4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생각하는 행복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연구절차

1) 관련 문헌과 도구 분석

행복감 척도를 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행복감, 안녕, 생활만족도 등에 관련된 주요 문헌과 척도를 수집하고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들 선행연구들(김도란·김정원, 2008; 이정미·이양희, 2005, 2008; 이정화, 2005; Diener et al., 1985)에서 나타난 척도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행복감 척도는 주로 3~6학년을 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고학년에 집중되어 있었다. 드물게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었다. 둘째, 행복감 또는 생활만족도에 대한 하위 영역은 약 5~6개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위 영역에 포함된 내용은 친구, 학교, 가족, 환경, 자아의 5개 영역으로 살펴본 연구, 자기존중감, 낙관주의, 친구관계, 가정환경의 4개 영역으로 살펴본 연구, 또한 가정환경, 자아특성, 능력, 대인관계의 4개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본 연구들이 있었다. 셋째, 평가 방법은 자기보고식 4~5점 Likert 척도를 주로 사용하였다. 이상과 같은 기존 도구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초등

학교 3-6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행복감 척도를 개발하고, 평가 방법은 4점 Likert 척도의 자기보고식 평가방식을 선택하여 초등학생용 행복감 척도를 제작하였다.

2) 문항개발과 전문가 검토

“한국 아동의 행복감 척도”에 포함된 1차 문항 제작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 먼저 행복감 척도의 주요영역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복감 척도나 생활만족도 척도의 대표적인 영역과 문항을 검토하여 6개의 하위 영역으로 설정하고 관련되는 문항들을 수집하였다. 관련되는 하위 영역으로는 자신에 대한 것, 대인관계(부모, 형제, 교사, 또래), 학교생활, 방과 후 활동(과외활동, 여가활동), 전반적 생활 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약 74개의 문항을 선정하여 제작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자 4인이 공동으로 행복감 척도의 하위 영역별 문항에 대한 내용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한 후 문항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 행복감 척도의 초안이 작성되었다. 이후 개발된 문항은 아동학과 유아교육학 관련 전문가 5인에 의한 전문가 검토를 거쳤다. 전문가들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중복되는 내용, 서술의 문제점, 관련 영역과 관련이 적은 문항 등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2개 문항으로 제작하였다.

3) 예비조사와 본조사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에 대해 서울, 경상, 전라도에서 4, 6학년 각 40명씩 80명의 240명을 선정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아동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응답에 어려움이 있는 문항을 삭제, 수정하여 보완하였다. 예비조사를 거친 후, 전국의 초등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수정된 척도를 이용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08년 4~5월의 약 3주일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연구자들과 해당 지역의 보조 연구자들이 표집된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직접 혹은 담임교사의 도움을 받아 수업 중 질문지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수집된 총 2,920명의 자료 중 불충분하게 응답했거나 자료가 누락된 경우를 제외하여 총 2,528명(86.6%)의 질문지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SPSS 17.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행복감 척도에 포함되었던 20번, 22번, 23번, 24번의 4개 문항은 역코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형제·자매 관련 영역에 포함되었던 2개 문항은 본 조사 과정에는 포함되었으나 이 문항은 외동 자녀에게는 해당 없는 문항으로 나타났으므로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분석과정에서 제외되었다. 분석에서 제외된 문항은 ‘12번 나는 내 형제, 자매와 사이가 좋다.’, ‘13번 나는 내 형제, 자매 때문에 짜증이

난다.’였다. 한국 아동의 행복감 척도의 타당도는 요인분석과 문항들 간 상호상관계수를 산출하여 구성타당도를 살펴보고, 신뢰도를 위해서는 하위 영역별 및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 계수인 Cronbach' α 를 산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행복감 척도의 타당도

1) 행복감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요인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수와 사례의 수가 적절한지를 나타내주는 표본 적합도인 KMO(Keiser-Meyer-Olkin) 측도 검정 결과를 살펴보았다. KMO 검정은 변수 간의 편상관을 통해 알아볼 수 있고 검정 값이 0.8 이상이면 요인 분석을 하기에 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행복감 척도 예비문항 32개에 대한 요인분석에서 나타난 KMO 측도값은 .93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위한 문항으로서 적합하였다. 또한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를 살펴보았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요인분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상관계수 행렬에 대해 검사하는 것으로서 상관계수 행렬이 대각행렬인가를 검정하는 것이다. 상관계수가 대각행렬이라는 것은 변수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용된 변수들이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의 p 값이 0.05보다 적으면 대각행렬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23987.731 ($df=435$)이었고, 이 값은 유의 수준이 .00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KMO 값이 0.8 이상이고, Bartlett의 p 값이 0.05 이하이었으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와 사례의 수가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행복감 척도의 하위 영역 및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고자 30개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성분 방법으로 Varimax 직각회전법을 실시하였고, 고유치가 1이상인 6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분석에 대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행복감 척도는 6개의 요인이 전체 변량의 51.23%를 설명하였다. 각 문항의 부하량을 살펴본 결과에서도 대부분의 문항은 해당 하위 영역에 .40 이상의 부하량을 보여 대체로 양호하였다. 그러나 21번 문항(나는 학원에 다니는 것이 즐겁다.)은 부하량이 .40 미만이고, 두 개의 요인에 이중으로 부하를 보여 최종 척도 구성에서 제외되었다. 각 하위 요인에 대한 설명량과 요인에 대한 명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동의 행복감을 설명하는 첫 번째 요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내는 문항들(9 문항)로 전체 변량의 13.12%를 설명하였으며, “자아존중감”

<표 2> 행복감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 I	요인 II	요인 III	요인 IV	요인 V	요인 VI	h ²
4. 나는 무엇이든 잘 할 수 있다.	.68						.51
17. 나는 친구들이 인정해줘서 좋다.	.66						.56
26. 나는 학교공부를 잘한다.	.63						.43
3. 나는 자주 칭찬을 받아서 즐겁다.	.62						.52
16. 나는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좋다.	.51						.40
1. 나는 내모습과 생김새에 만족한다.	.51						.36
5. 나는 항상 기분이 좋다.	.49						.49
29. 내가 해낸 일은 무엇이든 자랑스럽다.	.47						.38
2. 나는 건강하다.	.44						.27
11. 나는 아빠가 자랑스럽다.		.80					.64
10. 나는 엄마가 자랑스럽다.		.74					.64
8. 나는 아빠가 내 이야기 잘 들어주어서 기분이 좋다.		.65					.58
9. 나는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다.		.65					.52
7. 나는 엄마가 내 이야기 잘 들어주어서 기분이 좋다.		.65					.58
15. 나는 선생님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다.			.81				.74
14. 나는 선생님이 나를 잘 대해주셔서 좋다.			.79				.71
19. 나는 학교에서 하는 특별활동이 즐겁다.			.56				.43
18. 나는 학교생활이 즐겁다.			.53				.53
22. 나는 다니는 학원이 많아서 힘들다.				.83			.70
23. 나는 학원 숙제가 많아서 힘들다.				.79			.65
20. 나는 학교 숙제가 많아서 힘들다.				.55			.37
24. 나는 내 맘대로 할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52			.30
21. 나는 학원에 다니는 것이 즐겁다.*	.32			.37			.32
31. 나는 내가 사는 집이 좋다.					.71		.59
32. 나는 내가 사는 곳의 이웃사람들이 좋다.					.58		.44
28. 나는 매일 행복하다.					.50		.59
30. 나는 걱정스러운 일이 별로 없다.					.43		.43
27. 나는 내가 하고 싶은 활동(놀이)을 마음껏 할 수 있어 좋다.						.76	.65
25. 나는 매일 놀 시간이 충분해서 좋다.						.75	.62
6. 나는 언제든 원하면 사고 싶은 물건을 살 수 있어서 좋다.						.58	.45
고유값	8.03	1.96	1.61	1.54	1.19	1.04	
설명변량	13.12	9.59	8.27	7.50	6.45	6.30	
총 설명변량	13.12	22.71	30.98	38.48	44.93	51.23	

* 문항은 요인 부하량이 .40 미만이며, 요인 I 과 요인 II에 걸쳐 double loaded 된 문항으로 척도에서 삭제되었음

요인 I: 자아존중감, 요인 II: 부모와의 관계, 요인 III: 학교생활, 요인 IV: 과외생활, 요인 V: 전반적 생활환경, 요인 VI: 욕구만족

<표 3> 행복감 척도의 하위 영역 간 상호상관 계수

(N=2,528)

	요인 I	요인 II	요인 III	요인 IV+	요인 V	요인 VI
요인 I	1.00					
요인 II	.55**	1.00				
요인 III	.58**	.46**	1.00			
요인 IV+	.21**	.20**	.24**	1.00		
요인 V	.62**	.54**	.50**	.30**	1.00	
요인 VI	.38**	.31**	.25**	.19**	.40**	1.00

**p<.01, +요인에 포함된 부정 문항의 점수는 역채점 되었음

<표 4> 행복감 척도의 신뢰도

(N=2,528)

요 인	문 항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 α	전체 신뢰도 계수
요인 I	4. 나는 무엇이든 잘 할 수 있다.	.57	.79	.81 (9문항)
	17. 나는 친구들이 인정해줘서 좋다.	.61	.78	
	26. 나는 학교공부를 잘한다.	.48	.80	
	3. 나는 자주 칭찬을 받아서 즐겁다.	.58	.79	
	16. 나는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좋다.	.50	.80	
	1. 나는 내 모습과 생김새에 만족한다.	.51	.80	
	5. 나는 항상 기분이 좋다.	.52	.79	
	29. 내가 해낸 일은 무엇이든 자랑스럽다.	.50	.80	
	2. 나는 건강하다.	.35	.81	
요인 II	11. 나는 아빠가 자랑스럽다.	.59	.75	.81 (5문항)
	10. 나는 엄마가 자랑스럽다.	.59	.76	
	8. 나는 아빠가 내 이야기 잘 들어주어서 기분이 좋다.	.61	.75	
	9. 나는 가족과 함께있는 것이 즐겁다.	.54	.77	
요인 III	7. 나는 엄마가 내 이야기 잘 들어주어서 기분이 좋다.	.62	.75	.77 (4문항)
	15. 나는 선생님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다.	.66	.67	
	14. 나는 선생님이 나를 잘 대해주셔서 좋다.	.62	.70	
	19. 나는 학교에서 하는 특별활동이 즐겁다.	.48	.77	
요인 IV	18. 나는 학교 생활이 즐겁다.	.55	.67	.65 (4문항)
	22. 나는 다니는 학원이 많아서 힘들다.	.58	.49	
	23. 나는 학원숙제가 많아서 힘들다.	.53	.53	
	20. 나는 학교 숙제가 많아서 힘들다.	.35	.65	
요인 V	24. 나는 내 맘대로 할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32	.66	.67 (4문항)
	31. 나는 내가 사는 집이 좋다.	.44	.61	
	32. 나는 내가 사는 곳의 이웃사람들이 좋다.	.40	.63	
	28. 나는 매일 행복하다.	.50	.56	
요인 VI	30. 나는 걱정스러운 일이 별로 없다.	.46	.59	.60 (3문항)
	27. 나는 내가 하고 싶은 활동(놀이) 을 마음껏 할 수 있어 좋다.	.52	.34	
	25. 나는 매일 놀 시간이 충분해서 좋다.	.41	.51	
	6. 나는 언제든 원하면 사고 싶은 물건을 살 수 있어서 좋다.	.32	.63	
전 체				.90 (29문항)

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부모와 관련된 문항들(5문항)로 전체 변량의 9.59%를 설명하였고 “부모와의 관계”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요인은 선생님의 관계를 포함한 학교에 관련된 문항들(4문항)로 전체변량의 8.27%를 설명하였고, “학교생활”로 명명하였다. 네 번째 요인은 학교 과제 및 학원과 관련된 문항들(4문항)로 전체변량의 7.50%를 설명하였고, “과외생활”으로 명명하였다. 다섯 번째 요인은 주변 환경과 관련된 문항들(4문항)로 전체변량의 6.45%를 설명해주었으며 “전반적 생활 환경”으로 명명하였다. 여섯 번째 요인은 개인적인 욕구충족과 관련된 문항들(3문항)로 전체 변량의 6.30%를 설명하였으며, “욕구만족”으로 명명하였다. 그에 따라 최종적으로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6개 하위 영역의 총 29문항으로 한국아동의 행복감 척도를 구성하였다.

2) 행복감 척도의 하위 영역별 상호상관
행복감 척도의 하위 영역이 하나의 구인으로 묶일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척도 내 하위 영역 간 점수와 기타 영역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행복감 척도의 하위 영역 간 상호상관 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행복감 척도의 하위 영역 간의 상호상관 계수는 .19~.62($p < .01$)로 비교적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행복감이라는 하나의 구인으로 묶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위 영역 간 상호상관 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영역은 요인 I의 “자아존중감” 영역과 요인 V의 “전반적 생활 환경” 영역 간의 .62($p < .01$)이었다. 한편, 하위 영역 간 상호상관이 가장 낮게 나타난 영역은 요인 IV의 “과외생활”과 요인 V의 “전반적 생활환경” 영역으로 .19($p < .01$)이었다.

2. 행복감 척도의 신뢰도

행복감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하위 영역별 요인의 총점과 하위 문항 간의 상관, 각 문항을 제외하였을 경우의

하위 영역별 내적 합치도 계수, 그리고 하위 영역별 내적 합치도 계수 및 전체 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인 Cronbach' α 를 산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행복감 척도 전체 29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 계수인 Cronbach' α 는 .90으로 나타나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복감 척도의 하위 요인별로 산출한 신뢰도 계수는 .60~.81인 것으로 나타나 각 구성요인과 문항 간의 내적 합치도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요인 I인 "자아존중감(9개 문항)"과 요인 II인 "부모와의 관계"(5개 문항)은 영역은 신뢰도 계수가 각각 .81로 나타났고, 요인 III인 "학교생활(4개 문항)"은 .77, 요인 VI인 "과외생활(4개 문항)"은 .65, 요인 V인 "전반적 생활환경(4개 문항)"은 .67이었고, 요인 VI인 "육구만족(3개 문항)"은 .60이었다.

각 문항을 제외하였을 경우에 하위 영역별 신뢰도 계수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두개 문항을 제외하고는 영역별 전체 α 값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하위 영역별 문항 간 내적합치도가 대체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각 문항을 제외하였을 경우에 α 값의 변화를 나타낸 문항은 요인 IV의 24번 문항(나는 내 맘대로 할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와 요인 VI의 6번 문항(나는 언제든 원하면 사고 싶은 물건을 살 수 있어서 좋다.)이었다. 그러나 두 문항이 각각 해당 하위 영역 요인과의 내용관련성이 인정되고, 이 문항들을 각각 제외하였을 때 해당 하위 영역 별 신뢰도 계수의 변화가 그리 크지 않은 점과 위에서 살펴본 요인분석에서 하위 영역에 대한 해당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충분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본 행복감 척도의 개발과정에서 두 개 문항을 삭제하지 않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한국 아동의 행복감 척도를 개발하고, 행복감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행복감 척도의 타당도를 알아보고자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6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29개의 문항이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행복감의 요인 구조는 요인 I "자아존중감", 요인 II "부모와의 관계", 요인 III "학교생활", 요인 VI "과외생활", 요인 V "전반적 생활환경", 요인 VI "육구만족" 순으로 나타났다. 이 요인구조는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강영하(2008)의 연구 그리고 이정미와 이양희(2008)의 연구에서 확인된 행복감의 요인구조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우선 본 척도에서 행복감에 대한 설명하는 요인으로 부하량이 가장 크게 나타난 요인은 "자아존중감"이었다. 이 요인은 아동이 자신의 능력, 친구로부터의 인정,

자신감 등에 대하여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요인은 강영하(2008)가 구성한 척도의 요인구조에서 자아존중감이 행복감을 설명하는 부하량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이 자신이 행복한지 여부를 평가하는데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될 수 있다. 즉 자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행복감을 구성하는 데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이런 해석은 Baumeister, Campbell, Krueger와 Vohs(2003), Diener와 Diener(1995), Myers와 Diener(1995), Rosenberg, Schooler, Schoenbach와 Rosenberg(1995)가 제시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높은 행복감을 보였다는 결과를 뒷받침해주는 설명이기도 하다. 또한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사람이 주관적 안녕감을 높다고 설명되기도 일관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이훈구, 1998).

또한 행복감을 설명하는 요인들 중 "부모와의 관계", "학교생활", "전반적인 생활환경" 등이 있다. 이들 요인은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요인구조들과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는 구인이다. 초등학교 아동들은 행복감을 평가할 때 환경, 또는 상황이 포함된 자신의 일상생활을 통해 주관적인 평가를 내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생들은 행복을 평가하는데 자신 다음으로 학교, 가족, 주변 환경 등이 주요 요인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는 Diener(2000)가 제시한 대로 초등학교생들도 자신의 경험이나 생활환경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통해 행복감을 평가한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이다. 또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살펴 볼 때에도 아동은 자신의 행복 여부를 판단할 때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을 둘러싸고 있고 자신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미시환경 체계인 부모, 학교, 지역사회에 대한 주관적이고 긍정적인 해석이 행복감을 구성하는 중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행복감 척도를 개발하는 본 연구 과정에서 기존 연구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학원 관련 문항을 포함하였는데, 이 문항들은 요인 분석결과 행복감을 형성하는 하나의 구인으로 도출되었다. 이 요인은 "과외생활"로 명명하였다. 아동은 행복감을 형성할 때 학원 및 과외활동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Diener(1984, 2000)는 행복에서 주관적인 평가를 강조하고 있다. 이 관점에 의하면 행복이란 문화마다, 세대마다, 개인마다 다른 방식으로 경험될 수 있으므로 특정 세대나 연령 집단의 행복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면 집단 특성을 다각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동은 다른 문화권의 아동과는 다르게 학교 이외에 학원생활 및 각종 과외활동이 아동의 전반적인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이 학원을 포함한 과외생활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해석한 결과가 아동의 행복감을 구성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행복감 척도의 하위 요인 별 상호상관 계수를 산출한 결과 학원생활 요인과 나머지 하위 요인들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준 결과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요인에 포함된 부정 문항의 점수는 역채점이 되었으므로 유의한 정적 상관의 의미는 학원생활이 힘이 들수록 행복감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이는 선행연구에서(Diener, 1984; Emmons & Diener, 1986) 제시한 개인의 삶의 질 혹은 행복을 밝히는 데 있어 행복 수준이 높다는 것은 개인의 생활만족도가 높고, 긍정적인 정서는 높으며 부정적인 정서는 낮은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제시한 설명을 뒷받침 해주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개발된 행복감 관련 척도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본 척도에 포함된 요인은 “욕구만족”이라고 명명한 요인 VI이다. 이 요인에 포함된 문항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활동(놀이)을 마음껏 할 수 있어 좋다.”, “나는 매일 놀 시간이 충분해서 좋다.”, “나는 언제든 원하면 사고 싶은 물건을 살 수 있어서 좋다.”이었다. 이 요인은 현재 아동이 원하는 것을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로 남인숙(2007)이 제시한 만족적 행복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를 통해 선행연구와는 구별되게 나타난 요인구조들에 대해서는 차후의 행복감 척도의 타당화 과정을 통해 좀 더 면밀하게 요인구조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반면 선행연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포함되었던 또래관계 요인이 본 척도의 구성에서는 하나의 요인으로 도출되지 못하였다. 본 척도에 또래와 관련된 문항은 “나는 친구들이 인정해줘서 좋다.”와 “나는 친구들이 많아서 좋다” 2개의 문항이었으며 요인분석결과 이들 문항은 자아존중감 요인으로 묶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행복감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또래 관련 문항이 독립된 요인으로 도출되지 못한 것은 일부 선행연구(강영하, 2008; 이정미·이양희, 2008)에서 나타난 행복감 척도의 요인 구조와는 사뭇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또래를 중요시 하는 만큼 아동이 친구가 인정해주어서 좋거나 친구가 많아서 좋다는 평가를 통해 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형성한 결과라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결과에 대한 해석은 차후 연구를 통해 요인구조를 재차 확인한 후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행복감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전체 행복감 척도는 내적 합치도 계수가 .90이었으며, 자아존중감 및 부모자녀관계요인이 각각 .81, 학교생활이 .77, 학원생활이 .65, 전반적 생활환경이 .67, 욕구충족이 .60으로 대체로 만족스러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에서 흥미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행복감 척도의 하위 요인 별 내적합치도 계수는 선행연구와 공통으로 확인된 요인구조의 경우는 내적합치도 계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67~.80), 본 척도를 통해 도출된 요인구조의 경우는 다른 하위 영역의 내적 합치도 계수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60~.65) 나타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차후 타당화 연구를 통해 문항에 대한 보완 과정을 거쳐 하위 영역 내의 문항들 간에 내적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좀 더 광범위한 표집과정을 통해 안정적인 일관성 정도를 검증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아동의 행복감 척도는 6개의 요인구조가 밝혀졌으며 신뢰도면에서도 하위영역별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한국 아동의 행복감척도는 초등학교 아동의 행복감을 측정하는 데 타당하고 신뢰로운 도구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행복감 척도와 비교할 수 있는 척도를 구하기 어려워 개발과정에서 준거 타당도 또는 공인 타당도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지 못한 점이다. 이 문제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가 가지는 타당도에서의 제한점이다. 이 문제는 본 척도의 타당화 과정을 거치면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복감 척도를 초등학교 3-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구성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한 상황에서 초등학생의 행복감의 요인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행복감 척도를 전국적인 표집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표집의 대표성을 갖게 되어 연구결과의 일반화의 가능성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한국 아동을 대상으로 행복감 척도를 개발한 만큼 한국의 사회문화 맥락을 척도구성 시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초등학생 아동의 행복감을 좀 더 타당하게 수집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강영하(2008). 초등학생의 행복감 구성요인 탐색. *초등교육연구*, 21(2), 159-177.
- 곽금주(1995). KLSSA 검사에 의한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2(1),
- 구재선·김의철 (2006). 심리적 특성, 생활경험, 행복의 통합적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4), 1-18.
- 김도란·김정원(2008). 유아의 행복감과 부모의 행복감 간의 관계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3(6), 311-333.
- 김명소·김혜원·한영석·임지영(2003). 한국인의 행복한 삶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2(2), 1-33.
- 김연화(2007). 아동의 성격유형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행복감과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창대(2007). 왜 행복인가?: 불행의 심리학에서 행복의 심리학으로. **한국상담심리학회 대외 심포지엄: 행복의 재발견**, 16-31.
- 김희중(2007). 긍정심리와 주관적 행복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남인숙(2007). 행복감에 대한 소고. **사회이론. 봄/여름**, 217-321.
- 류광식(2002).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가정생활 만족도 및 학교생활 만족도와의 관계.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은국(2007). 우리사회 행복의 현주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 **한국상담심리학회 대외 심포지엄: 행복의 재발견**, 43-50.
- 신득렬(2000). 행복과 교육. **교육철학**, 18, 191-208.
- 신명덕(2007).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아동의 행복감간의 관계.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지연 · 정태연 · 전경숙(2007). 대학생의 행복요인 탐색과 척도 개발. **2007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412-413.
- 이수정 · 안신호(2005).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에 관한 연구 개관. **심리과학연구**, 4, 123-234.
- 이정미 · 이양희(2005). 한국판 아동용 다면적 생활만족도 검사(K-MSLSS)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2), 121-137.
- 이정미 · 이양희(2008). 한국판 아동용 다면적 생활만족도 검사(K-MSLSS)의 타당도 연구. **아동학회지**, 29(4), 249-268.
- 이정화(2005). 초등학생의 행복감 측정을 위한 도구의 개발.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선일보(2007. 11. 27). 초등학생 셋중 둘, 학원·개인과의 이용. <http://www.chosun.com/cp/edaily/200711/27/20071127000198.html>에서 2008년 5월 18일 인출.
- 조성연 · 신혜영 · 최미숙 · 최혜영(2009). 한국 초등학교 아동의 행복감 실태조사. **한국아동학회지**, 30(2), 129-140.
- 한겨레(2008. 11. 28). 요즘 초등학생들 얼마나 행복할까.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324678.html>
- Baumeister, R. F., Campbell, J. D., Krueger, J. I., & Vohs, K. D. (2003). Does high self-esteem cause better performance, interpersonal success, happiness, or healthier lifestyles?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4(1), 1-44.
- Burt R. S (1986). *Strangers, friends and happiness(GSS technical report NO. 72)*. Chicago: 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
- Cameron, P. (1995). Mood as an indicant of happiness: Age, sex, social class, and situational differences.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ist**, 31, 117-124.
-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Y.: Russel Sage Foundation.
- Csikszentmihalyi, M. & Wong, M. M. (1991). The situational and personal correlates of happiness: a cross-national comparison. In F. Strack, M. Argyle, & N. Schwarz (Ed.), *Subjective well-being: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pp. 193-212). Oxford: Pergamon Press.
- Cohen, S. (1988). Psychological models of the role of social support in the etiology of physical disease. **Health Psychology**, 7, 269-297.
- Diener, E.(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Diener, E.(2000).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a national index. **American Psychologist**, 55(1), 34-43.
- Diener, E., & Diener, M. (1995).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653-663.
- Diener, E., Emmons, R. S.,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 Emerson, R. A., & Diener, E(1985). Personality correlates of subjective well-be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1, 89-97.
- Fordyce, M. W. (1985). *A program to increase personal happiness: More studies*. Edison Drive Piqua, Ohio: Edison Community College.
- Harter, S.(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Holder, M. D., & Coleman, B. (2008). The contribution of temperament, popularity, and physical appearance to children's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9(2), 14, 279-302.
- Myers. D. G. & Diener, E. (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 10-19.
- Park, N., & Peterson, C. (2006). Character strengths and happiness among young children: Content analysis of parental description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7(3), 323-341.
- Rosenberg, M., Schooler, C., Schoenbach, C., & Rosenberg, F. (1995). Global self-esteem and specific self-esteem: different concepts, different outcom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 141-156.
- Rubin, K. H., Bukowski, W., & Parker, J. (2006). Peer interactions, relationship, and groups. In W. Damon & R. Lerner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6th ed.).

N.Y.: Wiley.

Ryff, C. D., & Keyes, C. L. M.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719--727.

Seligman, M., & Csikszentmihalyi, M. (2000).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55, 5-14.

Snyder, C. R. & Lopez, S. J. (2002).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N.Y. Oxford University Press.

Veenoven, R. (1991). Questions on happiness: Classical topics, modern answers, blind spots. In Strack, F., Argyle, M., & Schwarz N. (Eds). *Subjective Well-being* (pp. 7-26). Oxford: Pergamon Press.

Vitrano, C.(2006). The Structure of Happin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City Univ. of N.Y.

접수일 : 05월 21일

심사일 : 07월 28일

심사완료일 : 09월 18일